

대한민국 대통령과 리더들의 조건

성경말씀: 삼하23:1-7

매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6월 6일 현충일, 이번 금요일은 북한의 6.25 남침 발발 71주년 교회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6월과 8월에는 애국 설교를 하였다. 이유: 국가는 교회를 담는 그릇 성경의 사람들: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백성들을 설득하다가 그들이 거부하자 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 나라에 가깝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애국심, 군인들 예우가 대단하다. 비행기 탑승부터 호텔 등, 군인 경찰관 존중 성경은 단순히 하늘나라 가라고 구원만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이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지침이 들어 있다.

사무엘기상하: 다윗 이야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몇몇 범죄를 빼고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특별히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왕의 조건에 대해 기록하였다.

다윗은 여기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하였다(3).

즉 국민의 리더들, 치리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 목사도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거의 지옥 같은 생활을 하였다.

그 이유: 지도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은 < >,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대통령)의 조건에 대해 설교하려고 한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국가이다.

즉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나라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이 나라에는 국교가 없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정교일치를 벗어난 국가이다. 100% 정교 분리

그러므로 대통령은 반드시 기독교인일 필요가 없다. 지방, 당, 남녀, 나이 상관없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에 맞는 치리자를 택하면 흥할 것이고 반대가 되면 망할 것이다.

대통령과 리더들의 조건 1: 자기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삼하23:1,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의 교훈 혹은 다윗 왕조가 이어지면서 나오게 될 왕들에게 주는 유언

그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다. 높이 일으켜진 자(1), 이 말은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일으켜졌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자기가 왕을 하려고 노력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다. 그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뒤 교만하게 되어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대언자를 죽이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결국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왕이 된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비극이 되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이새의 막내아들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다. 그런데 다윗 역시 왕이 될 것이라고는 자기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주변 사람들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7세 정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심지어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나 사울의 극심한 핍박을 받으며 무려 13년 동안 들로 산으로 도망 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자기 때를 기다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사울의 학정에 못 이겨 그를 따르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와서 그를 돕고자 하더니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 같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대상12:22).

바로 이것이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그가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족속 같은 악한 자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늘리며 메시아 왕국의

초석을 놓게 되었다.

중요한 것: 다윗은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 그런데 그 일은 백성이 자기에게 모이는 것에 의해 증명이 되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뒤에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였다(삼상18:5).

왜?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였으므로

큰 영토를 차지하고 왕국의 기틀을 정비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하였다.

그때에 드러난 그의 마음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사용하셨는지 금세 알 수 있다.

대언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1. 너는 집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짓는다(삼하7:12). 2.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7:16).

다윗의 대답(7:18-19), 그는 철저히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결코 교만한 자리로 올라가지 않았다.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을 믿는다(롬13:1). 현존하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하나님이 내신다. 성경을 보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악하면 악한 왕을 구할 것이며 그 결과 국가는 망하게 된다.

국민이 선하면 선한 왕을 구할 것이며 그 결과 국가는 흥하게 된다.

다니엘서 3, 4장의 느부갓네살을 보라. 이방인 제국의 위대한 왕

그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게 되었다.

이사야서 44-45장의 고레스를 보라. 이 세상 이방 민족들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등장하기 170년 전 예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로 이들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존경을 받고 국가를 흥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면 교만을 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인간 정부가 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껏 경제생활하게 해 주며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일 외의 더 큰 정부를 구성해서 국민을 국가의 밑에 집어넣어 속박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과 리더들의 조건 2: 의로워야 한다

국가의 지도자는 의로워야 한다(3).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은 위에서 이야기하였다.

왕은, 대통령은 의로워야 한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다윗의 말이 아니다.

주의 영(2),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3)이신 분의 말씀

다 아는 것처럼 의롭다는 말은 올바르다, 옳다, 정직하다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혹은 위협에 빠진 사람을 견져내면 그는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불린다. 즉 이 말은 잘못이 없다. 좋은 사람이다 등으로 해석이 된다. 영어로 가면 just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의라는 justice가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마다 옳고 그름(정의)의 기준이 다르다. 대통령이나 리더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리더들에게 이 말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헌법을 지키라.” 교회 목사: “성경대로 하라!”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 이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원형, 미국의 자유 헌법: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인권이 고스란히 이 안에 들어 있다. 왜? 기독교 혁명을 통해 미국을 세운 창립자들이 인류 역사를 조망해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혹은 대설계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그 안에 다 명시하였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모든 정신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거의 최대치로 요약되어 들어 있다. 그 이후로 이 헌법이 전 세계에 파급되었고 우리나라도 1948년 나라를 세우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초대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이 헌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었고 그 뒤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치리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국가와 국민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대통령과 치리자들은 자기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의 통치 행위가 헌법에 맞는지를 늘 심사숙고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치리자의 조건이다. 헌법을 많이 읽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숙지해야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 이것이 목표가 아닌가? 4절 그 결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자기 뜻을 펴려고 헌법을 바꾸려 하고 수많은 악법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고 자기 뜻을 펴서 국민을 자기들 밑에 속박시키려는 것에서 나온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국민을 국가의 속박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이 될 분들에게 부탁하는 말: 헌법대로 나라를 지켜 달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지 헌법을 바꾸어 사회주의/공산주의 나라를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디 자기 뜻을 버리고 5년 동안 헌법대로 나라를 통치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현 시대 통치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대통령과 리더들의 조건 3: 악한 자들을 처단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법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고 법을 부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허락해 주셨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도 대다수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런 양심을 확인 받은 양심이라고 말한다.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

악이 선하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수도 없이 들으면 결국 이런 양심을 갖게 된다. 즉 불량한 양심의 소유자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국가는 망하게 된다. 6-7절에서 다윗은 치리자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다스려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악한 자들은 여기서 벨리알의 아들들로 표현되어 있다(6). 즉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국가가 평화롭게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사실 국가가 평화롭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악인들, 국가를 파괴시키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가시나무 같아서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6).

말 그대로 가시 천지라 손을 쓸 수가 없다. 즉 국가 파괴자들은 손을 대어 고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치리자들은 쇠와 창 자루로 강하게 스스로 무장해야만 한다(7).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가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을 응징해야 한다. 그리고 가시들을 철저히 불살라 태워야 한다(70).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와 치리자들을 허락하신 이유이다.

인간 정부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 등장한다. 가장 중요한 것: 사회의 질서를 잡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롭게 법대로 사려고 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웨인 그루템의 성경과 정치 30회 강의, 유튜브

구체적인 사례

어떤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며 철저히 응징을 받아야 할 자들인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인가?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갔다가 오스트리아를 국가 원수로서는 건국 이래 처음 방문했다.

이때 문 대통령이 말을 두고 한 분이 신문에 기고한 글을 구체적인 예로 읽어 주려고 한다.

2021년 6월 17일(목), 김태훈 논설위원, 제목 '문'재인의 높은 윤리

역사상 많은 비극이 “나는 윤리적이다”라는 자아도취에서 비롯됐다. 13세기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나는

인간보다 고귀하다”는 말로 자신을 윤리적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그를 이은 후대 교황들은 잔인해졌다. 평생 검소하게 산 16세기 교황 식스토 5세는 자신의 윤리 기준을 절대화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거침없이 목매달았다. 아이들까지도 처형했다.

- ▶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었그제 오스트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가톨릭의 가치가 평생 내 삶의 바탕을 이루었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나는 높은 윤리 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말 높은 윤리 의식을 지니고 살아온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스스로 “높은 윤리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겸허함 자체가 윤리의 표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윤리 의식은 특이하다.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전체주의 체제이다. 카톨릭 교회가 왕성한 국가는 가장 못 살고 후진적이며 중세암흑시대처럼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을 압제하고 무지로 몰아넣는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남미 유럽 등을 보라.
- ▶ 문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간여한 비윤리적 행태는 이루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 정권의 수많은 내로남불만큼 비윤리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나? 자기 친구를 위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울산 시장 송철호 선거 개입), 드루킹 개입 의혹(약 1억 건의 댓글 조작, 문을 대통령으로 만듦, 주범 김경수는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 유재수 비리 비호 의혹, 딸을 위한 이상직 비리 비호 의혹,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공중분해 시킨 사실 등 열거하기도 힘들다. 청와대 내부 감찰을 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높은 윤리 의식을 지켜왔다”고 말한다.
- ▶ 문 대통령은 남에겐 윤리적으로 높은 곳에 서서 아랫사람 꾸짖는 태도를 보이곤 한다.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할 때도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 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엄격하다. 마태복음서에 실린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마7:3-5,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 ▶ 여기에서 내로남불의 극치 조국을 임명하지 않았는가?

이분의 말씀 결론: 이것은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서는 안 되는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 된다.

낙태 동성에 안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 안 된다. 이미 헌법으로 다 된다. 기독교 탄압이다.

부자를 죽이고 그의 자산을 빼앗는 제도: 안 된다, 부자들이 투자해야 나라가 살 수 있다.

부자를 편파적으로 우대하는 것 안 된다. 법 앞에 평등하다.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우대하는 것 안 된다. 법 앞에 평등하다.

교통 법규 위반, 10만원, 2만원 안 된다.

극도의 상속세, 안 된다. 누가 기업 하겠는가? 열심히 마음대로 일하게 해야 한다. 왜 52시간 등으로 규제하는가?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정하면 안 된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

여자를 편파적으로 우대하는 것 안 된다. 극도의 페미니즘 안 된다.

외국인을 편파적으로 우대하는 것 안 된다. 사랑을 베풀되 국민 이상은 안 된다.

노조를 편파적으로 우대하는 것 안 된다. 국가가 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20-30 세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국가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노인 세대들이 양보해 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 무상 배급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많이 가진(배운) 사람들이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류애이다.

결론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

1.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의로운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헌법대로, 내로남불 안 된다.
3. 악인들을 응징하는 사람
4. 마지막으로 절대로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안 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분이 당선되어 나라를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